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4> 참선하는 사람들이 점검해야 할 일

<선가귀감> 22장에서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점검할 일들을 살펴본다. 大抵參禪者 通知四恩 深厚慶 通知四大 醜身 念衰朽廢 通知人命 在呼吸慶 生來 值遇佛祖慶 及聞無上法 生希有心慶 不離 僧堂 守節慶 不與隣單 雜話慶 切忌敲扇是 非慶 話頭 十二時中 明明不昧慶 對人接話 時 無間斷慶 見聞覺知時 打成一片慶 返觀 自己 捉敗佛祖慶 今生 決定續佛慧命慶 起 坐便宜時 還思地獄苦慶 此一報身 定脫輪 迴慶 當八風境 心不動慶 此是參禪人 日用 中 點檢底道理 古人云 此身不向今生度 更 待何生度此身

처님과 조사 스님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생에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를 잇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가? 앉고 누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의 고통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팔풍(八風)의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내용들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 사생활 속에서 늘 점검해야 하는 도리이다. 옛 어른께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씀하셨다.

일상생활에서 늘 점검하여 화두공부에 매진할 것 강조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임금, 스승, 시주의 은혜가 깊고도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추한 이 몸은 순간순간 썩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으니, 들이킨 숨을 내쉬지 못하거나 내쉬는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그때 바로 죽는 때임을 알고 있는가?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을 만나고도 살아보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뜻이 깊고 거룩한 법문을 듣고서 이 법이 참으로 귀한 법이라는 마음을 낸 적이 있는가? 수행터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이 잡담을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깨를 툭 치며 시비하는 일들을 간질질 꺼리고 있는가? 오가는 숲 속에서 화두가 끊이지 않고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화두가 끊기는 일은 없는가? 보고 듣고 느낄 때도 화두가 하나로 영글어져 있는가? 자신의 근본을 돌아보고 부

첫째, 추한 몸을 만들어 내는 네 가지 요소인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른바 우리 몸에 있는 머리털과 손톱, 치아와 살갗, 근육과 뼈로서 만져지는 것은 모두 썩어서 땅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콧물과 피고름 눈물로서 손에 적혀지는 축축한 것은 모두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몸이 있는 따뜻한 체온은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들숨과 날숨처럼 몸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은 모두 바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 사람의 몸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난 존자가 “육방의 기운이 거칠고 탁하여 더럽고 비린 것이 서로 어울려서 이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신 이 몸을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둘째, 이 몸이 순간순간 썩어간다는 것

은, 세월이 한 순간도 멈추지 않으니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이 나날이 희게 세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옛 어른께서 “지금 늙어서 이미 옛 모습도 아니고, 뒷날 죽고 나면 지금의 모습일 수도 없다”라고 한 말과 같으니, 이것이 덧없이 변하는 세상살이의 실체이다. 그러나 덧없이 변화를 부르는 무상(無常)이란 귀신은 죽이는 것을 오락으로 삼고 있으니 실로 순간순간이 두려울 따름이다.

셋째, 세간에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므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 팔풍(八風)이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과 손해, 내 뒤에서 헐뜯거나 칭찬하는 것, 내 앞에서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것, 괴로운 일과 즐거운 일이 여덟 가지 경계에 집착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팔풍’이라고 한다.

넷째, 지옥의 고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세계 육식 곱씹이 지옥의 하루인데, 지옥에서는 뜨거운 불이 끓고 시뻘건 숯불이 튀고 날카로운 칼들이 숲과 산을 이루어서 지옥 중생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므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발등의 불을 끄듯 화두 공부에 매진할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上來法語 如人飲水 冷暖自知 聰明不能救美 乾慧未受苦輪 各須察念 勿以自誤. 위에서 말한 법어는 물을 마신 사람만이 그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아는 것과 같다. 총명한 사람이라도 지어놓은 업을 뿌리칠 수는 없고 일음알이 쏠모없는 지혜로는 쳇바퀴처럼 이어지는 고통을 면치 못하니, 자마도 모를지 한 생각을 살피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이다. ■원소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행복동 사람들

노력과 만족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도량석(道場釋)

수행자를 깨우고 경계하기 위해 새벽녘 사찰을 돌며 목탁을 치는 도량석. 옛부터 ‘하늘은 자시(밤11시~1시에 열리고, 땅은 속시(1시~3시에 어둠에서 풀리며, 사람은 인시(3시~5시에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산사에서는 부전스님이 모든 생명을 어둠과 잠에서 깨우기 위해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돌니다. 도량을 정화하는 의식인 것이지요.

도량석에는 요령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탁이 사용된 까닭은 선종의 영향 때문이지요. 선종사찰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백장정구>에 보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다’면서 ‘수행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고 도를 닦게 하기 위해 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어를 두드려 수행자의 잠을 쫓고 혼미한 정신상태를 경계한다는 의미지요. 도량석 목탁치는 고요한 상태에서 작은 소리로 시작해 점점 커졌다가 마침 때에는 큰 소리에서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본래의 고요 속에 묻히고 맙니다. 여기에서 작은 소리는 어둠과 고요한 본체를 상징하고, 큰 소리는 밝음과 힘찬 움직임을 상징하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5강 혜능의 권유(1), “선근(善根)을 심어라!”

6장 각마다 불인 혜능의 설명을 끊어 듣는다.

1절 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眾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心. 수부티가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대제 어떤 중생이,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혜능의 해설) 須菩提問此法甚深難信難解, 末世凡夫智慧微劣, 云何信入. 佛答在下. 수부티는 “이 법이 깊고 깊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세의 법부들이 미약한 지혜로 어떻게 이 속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부처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2절 佛告須菩提,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為實. 수부티가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대제 어떤 중생이,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이 말을 믿었으며,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혜능의 설명은 없다. 다만 ‘후오백세

(後五百歲)’에 대한 함허의 부연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한다고 믿는 불교가 자신의 가르침만은 여기서 예외였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뜨거운 종교적 열망과 창시자의 인도도 시간과 함께, 차츰 식고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승가 또한 점차 쇠퇴와 하강의 단계를 밟는다. 처음 5백년은 해탈되고(解脫牢固),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음 5백년은 선정되고(禪定牢固), 명상을 통해 안신입명에 이른 사람들이 나타난다. 다음 5백년이 되면 다문되고(多聞牢固), 즉 경전의 지식으로 깨달음을 대신하는 것이 유행하며, 다음 5백년은 탐사되고(塔寺牢固), 경전도 죽고, 외형적 절간과 탑만 덩그러니 남는 쓸쓸한 풍경이 남는다. 마지막 5백년은 부쟁되고(鬪諍牢固), 알음알이의 권위와 절간의 소유를 놓고 서로 다투고 힐끗는 마가는 드잡이가 벌어진다.” <금강경>은 이 말세 중 말세에도 최후적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말한다. 이 곳 뉴스는 소승이 생각한 불법의 쓸쓸한 하강을 비웃으며, 희망의 복음 이 언제나 빛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가위 돋고적 전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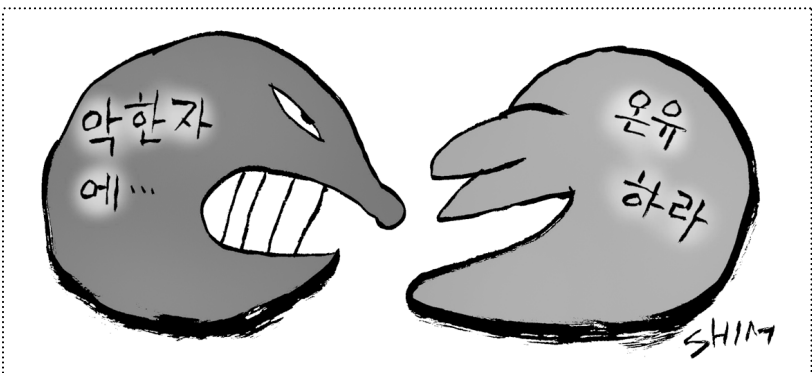
3절 當知, 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 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心.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수많은 삶을 거치며, 수많은 부처에게 나아가 선근을 심은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서는 바로, 깨끗한 믿음에 이롭지나... - 혜능의 설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은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즉 도대(住)를 잃을 때, 그때 위에서

에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언설(信說)은 진실하여 믿을 만하다. 왜냐. 이미 무량천만번에 걸쳐 선근을 심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여래는 말한다. “내가 멸한 후, 후5백세에, 이미지를 여릴 수 있었던 수행자(離修修行者)가 있으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처만에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2. 何名種諸善根. 略說次下. (1) 所謂於諸佛所, 一心供養, 隨順教法, 於諸善薩善知識所信

락 다음과 같다. (1) 여러 부처 계신 곳에 일심으로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여러 보살, 선지식, 스승, 부모, 나이든 자, 덕 있는 자, 존귀한 자가 있는 곳에 늘 공경하고 공양하며 가르침을 따르고, 그 뜻을 어기지 않을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2) 육도의 중생들에게 살해를 가하지 않으며, 그들을 속이지 않고, 업수이 어기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고 욕보이지 않으며, 올라타거나 굴레 씌우거나 않으며,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요익(饒益)하

을 일으키고, 강포한 마음을 식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부처님을 믿고, 스승을 따르며, 짐승과 사람을 존중하고, 악자와 빈고한 자들을 돌보며, 악당들에게도 온유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화시키는 것. 이 어려운 일이 ‘선근을 심는 일’이다. 3. 信心者, (1) 信般若波羅蜜, 能除一切煩惱. (2) 信般若波羅蜜能成就一切出世功德. (3) 信般若波羅蜜, 能出生一切諸佛. (4) 信自身中佛性本來清淨, 無有染污, 與諸佛性, 平等無二. (5) 信六道眾生本來無相. (6) 信一切眾生盡能成佛, 是名淨信心也.

악한 자들에게 온유하라



父母者年宿德尊長之處, 常行恭敬供養, 承順教命, 不違其意, 是名種諸善根. (2) 於六道眾生, 不加殺害, 不欺不誑, 不毀不辱, 不驕不, 不食其肉, 常行饒益, 是名種諸善根. (3) 於一切貧苦眾生, 起慈愍心, 不生輕厭, 有所須求隨力惠施, 是名種諸善根. (4) 於一切惡類, 自行和柔忍辱, 歡喜逢迎, 不違其意, 令彼發歡喜心, 息瞋戾心, 是名種諸善根. 무엇을 일러 ‘선근을 심었다’하는가. 개

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3) 일체의 가난과 고통 중생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일으키며, 무시하거나 염증내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바 있을 때, 있는 힘껏 배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4) 일체의 못된 악한 무리들에게, 스스로 화유(和柔) 온유하게 대하며, 참고, 그들을 기쁘게 맞고 보내며,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환희심

다음 신심(信心)이란 무엇인가. (1) 반야 바라밀이 일체의 번뇌를 제거해 준다는 것을 믿고, (2) 반야바라밀이 일체의 출세간의 공덕을 성취시켜준다는 것을 믿고, (3) 반야 바라밀이 일체의 제불(諸佛)을 낸다는 것을 믿고, (4) 내 몸 가운데 불성이 본래 청정하여 오염이 없으며, 여러 부처의 불성과 더불어 평등 무이(無二)하다는 것을 믿고, (5) 육도중생이 본래 무상(無相)이라는 것을 믿고, (6) 일체 중생이 모두 능히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를 일러, ‘깨끗한 믿음(淨信心)’이라고 한다. -<금강경>의 언설 한 마디에 깨끗한 믿음이 이른다!” 대제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혜능은 말한다. (1) 반야바라밀은 우리 안의 오랜 번뇌를 제거하고 삶을 고양시켜 줄 것이다! (2) 그 힘과 가능성은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다만 발견했을 뿐이다. (3) 그러므로 중생이란 없다. 명심하라, 사물의 차이와 구분은 다만 자아의 불완전한 눈에 비친 이미지 혹은 그림자일 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